

# 아까시나무림의 분포면적과 금후전망

김종원/한국수목보호연구회 부회장

## 1. 서 론

아까시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이 황폐되었을 때 산림을 녹화시키고 연료를 공급하고, 잎은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꽃은 배고픈 아이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기호식품이기도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아까시나무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무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훼손시킨 곳이면 어김없이 쳐들어와 괴롭히는 못 쓸 나무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까시나무의 생태와 공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황폐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기여했고, 꿀벌의 귀중한 밀원이며 목재의 가치도 높다고 외쳐보지만 알아듣는 사람 하나 없는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임업연구원에서 전국의 활엽수 자원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까시나무의 분포면적은 12만5천ha에 불과하며, 이중 활엽수 단순림은 4만7천ha에 불과하고, 7만8천ha는 혼효림 상태로 있어 급격히 감소할 위기에 있음으로 아까시나무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주요 활엽수 종의 분포면적

(단위 : 면적=천ha, 축적=천m<sup>3</sup>)

수 종	면 적(ha)				축적(m <sup>3</sup> )	
	단순림	혼효림	계	비율	축적	비율
계	1,579	928	2,507	100	121,649	100
참나무류	830	863	1,693	52	63,125	52
아까시나무	47	78	125	5	4,379	4
오리나무류	68	39	107	4	3,502	3
서어나무류	71	14	85	3	5,069	4
산벚나무	57	25	82	3	4,167	3
물푸레나무	47	21	68	3	4,061	3
밤나무	29	35	64	3	2,332	2
자작나무류	42	15	57	2	4,005	3
단풍나무류	37	11	48	2	2,825	2
층층나무	24	7	31	1	1,860	2
굴피나무	18	8	26	1	1,027	1
기 타	-	-	121	5	25,297	21

## 2. 아까시나무의 분포면적 및 축적

아까시나무의 조립면적은 30만ha가 넘지만 현재 남아있는 면적은 12만5천ha로서 전산림면적의 2%에 불과하며 그나마 단순림은 4만7천ha이고 7만8천ha는 혼효림 상태이다.

표 2. 아까시나무 도별 분포

도 별	면 적(ha)		축적(m <sup>3</sup> )	
	면적(ha)	비율(%)	축적(m <sup>3</sup> )	비율(%)
합 계	124,589	100	4,378,913	100
경기도	21,951	18	872,631	20
강원도	2,231	2	135,763	3
충청북도	8,699	7	303,118	7
충청남도	7,865	6	274,558	6
전라북도	4,886	4	138,584	3
전라남도	5,163	4	156,873	4
경상북도	48,095	39	1,802,294	41
경상남도	25,699	20	695,057	16
제주도	-	-	35	-

## 3. 아까시나무의 도별분포

아까시나무는 황폐가 심하고 토질이 척박한 곳에 많이 남아있는데 경상남·북도는 황폐지가 많았을 뿐아니라 토질이 척박하여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이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황폐지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타 도는 현재 분포면적이 1만ha 미만이다.

#### 4. 아까시나무 표고별 분포

아까시나무는 표고 300m 이하의 낮은 곳에 대부분 분포하고 300m 이상에는 11%에 불과하다.

#### 5. 아까시나무의 영급 분포

아까시나무는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백년이 넘었고, 대대적으로 식재된 시기는 50년대 이후라 해도 IV령급까지는 각 영급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정상이나 III령급 이하가 96% 이고 IV이상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아까시나무의 수명은 30년 내외로 생각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조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I령급이 13%에 불과하고, II,III령급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년 후에는 집단림은 거의 없어지고 혼효림 상태 또는 단 목적으로만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6. 아까시나무의 생장율

아까시나무의 경급별 생장율을 보면 흉고직경 10cm까지는 생장율이 13.3%로 높으나 12cm이상 16cm까지는 9.2%로 급격히 떨어지며 18cm 이상 중격목은 경기와 전남에서만 측정이 가능했는데, 7.3%로 낮아졌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평균 흉고직경이 18cm이상 중격목이 거의 없어 측정할 수 없었다.

#### 7. 아까시나무림의 금후 전망

아까시나무는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도 빨라서 갱신이 잘 될 것 같지만 잠관목이 밀생된 곳에는 인공조림을 해도 성림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과거 산림이 황폐되었을 때는 심기만 하면 성림이 되었으나 녹화가 완료된 8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조림을 하지도 않지만 일부 사방지에서 식재를 해도 살아남는 것이 많지 않다. 더욱이 영급분포 조사결과에 의하면 30년 이상되는 IV령급 이상의 아까시나무림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임내에서의 수명은 30년 내외로 추정되므로 현재 남아 있는 아까시나무도 20~30년 후에는 집단림으로 남아있는 아까시나무림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표 3. 아까시나무 표고별 분포

도 별	면 적(ha)		축 적(m <sup>3</sup> )	
	면적(ha)	비율(%)	축적(m <sup>3</sup> )	비율(%)
계	124,589	100	3,775,141	100
300m이하	110,369	89	590,863	86
301-600	13,978	11	12,909	13
601-900	242	-	-	1

표 4. 아까시나무의 영급분포

영 급 별	면 적(ha)		축적(m <sup>3</sup> )	
	면적(ha)	비율(%)	축적(m <sup>3</sup> )	비율(%)
계	124,589	100	4,378,913	100
I	16,621	13	2,069,407	-
II	65,689	52	1,980,725	47
III	38,340	31	268,264	45
IV	3,345	3	49,700	6
V	494	1	10,817	1
VI	100	-	-	1

표 5. 경급별 생장율

경 급	6~10cm	12~16cm	18~22cm
생장율	13.3(%)	9.2(%)	7.3(%)

\*18~22cm의 생장율은 경기·전남의 평균치임

아까시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목을 제거하고 무육관리를 철저히 하면 생명도 연장 시킬 수 있고 대경목으로까지 키울 수 있겠으나 현재 천연림 보육작업이나 생명의 숲 가꾸기 작업장을 가 보면 참나무나 기타 유용수종을 중요시하고 아까시나무는 대부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아까시나무를 보존하는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까시나무림의 분포면적과 금후전망’을 읽고**

분문은 지난 4월2일 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 총회·특강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장래 한국의 양봉업계 명운이 걸린 아까시나무 밀원을 조망해 볼수 있는 좋은 자료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양봉업계의 존립기반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946,805군('98년말 현재)에 이르는 전국의 꿀벌 사양규모에 있는게 아니라, 벌꿀 전체생산량중 약 75%를 차지하는 아카시아꿀이 생산되는 밀원 ‘아까시나무림’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양봉업자들은 양봉경영에 토지, 축사등 고정자산에 한푼의 투자없이도 자생밀원을 상대로 꿀벌을 치기만 하면 되는 풍토때문에 임업계서는 “무임승차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까시나무가 조림된 혜택은 양봉가들만 보고, 막상 산주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건 당연하다. 밀원자원 증식문제에 관해서는 양봉업계서는 지금까지 양봉가에 의한 밀원조성을 소리높여 주창해 왔지만 허공에 메아리치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보다는 산림 경영자인 산주측에서 먼저 단기 산림소득작목 선정측면에서 불 때 양봉을 복합영림경영형태로 유도해 불만 하다는 임업경제 연구과제로 검토되고 있으며, 또 그 래야만 자조적 밀원조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전실한 양봉발전을 이룰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아카시아꿀 단위생산량이 10여년 전엔 군당 15kg 내외였던게 지금은 군당 24kg는 평균이하 수준이고 60kg까지 생산실적을 올리는 기록들이 흔해지고 있다. 현존 아까시나무 밀원의 수령을 따져 본다면 50-60년대에 집중 조림된 것으로 치면 30년생 전후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바로 지금이 화밀분비 최성기란 사실을 직감할 수 있다. 이를 정점으로 향후 아까시나무림 수령이 30년 이상의 노고목화로 화밀분비량도 반감돼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협회는 밀원자원 문제는 우선 쉬운 일부터 접근하여 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와 연대하여 아까시나무림 보호-육성문제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양봉인들의 자조적인 참여와 협동심이 없이는 가시적(可視的) 성과를 기대하기란 요원할 것 같다. <김충겸>

**회원주소록 발간, 오는 11월25일 협회창립일을 발간일로 정해 서둘렀습니다**

작년 '98년에 회원주소록을 발간할 계획이 뜻밖의 경제위기를 맞아 약속을 이행치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울서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겨온지 1년이 다 되고 보니 만감이 교차되기도 하고 그사이 양봉협회보의 지형변경,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등 1년 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루지 못한 회원님과의 약속, 즉 회원주소록을 금년 10월25일 협회 창립일을 발간일로 잡아 작업을 준비 중이오니 각 회원님의 변경 전화번호를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확인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전화번호는 2개 이내 수록이 가능하고 오는 7월말까지 반드시 엽서를 사용해 주시고 전화통보는 삼가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